

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일시 : 2015. 3. 26(목) 14:30-15:00 / 장소 : 금강대학교 대회의실

< 참석자 : 서문성의장, 장민호위원, 박훈성위원, 천수승위원, 이은아위원, 이정재위원, 이문성(덕중), 남용광(진성) 위원 이상 8명 >

< 배석자 : 민주영 이상 1명 >

< 불참석자 : 권탄준위원 이상 1명 >

사회자 : 지금부터 2015학년도 제1차 금강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번 위원회는 재적위원 9명에 참석위원 8명으로 적법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2014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(안)을 심의받고자 이렇게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

< 본 회의 >

사회자 :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.

서문성 의장 : 본 사항은 앞서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. 별다른 변동내용 없이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답변만 드렸습니다. 그럼 2014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(안)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주무부서인 기획조정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.

[기획관리처 기획조정팀 박훈성팀장 2014학년도 금강대학교 결산(안) 설명]

박훈성 의원 :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비록 총 결산액은 줄었지만 연구학생경비는 전년대비 증액지출이 되었습니다. 그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줄여 긴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

서문성 의장 :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급여를 동결하여 최대한 인건비 폭을 줄이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경비에 예산을 책정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.

이은아 의원 : 연구학생경비 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은 결국 학생들에게 주는 돈인데 대상자가 증가되어 지출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요?

민주영 배석자 : 먼저 회계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. 수입부분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을 계상하면 그에 대응되는 지출부분에서 그만큼 동시에 계상해주어야 합니다. 수입부분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대응되는 지출로서 같이 늘어났다고 보시면

됩니다.

이정재 의원 : 국가근로장학금에서 대상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인원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요?

민주영 배석자 : 인원은 중복되어 계상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 동일한 사람이 4번을 수혜를 받을 경우 중복적용하여 4명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.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금액과 인원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

서문성 의장 : 네,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다시 한번 즉시 확인시켜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회의 안건인 2014학년도 결산심의는 이미 외부회계감사와 천태중회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된 사항이라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보입니다. 특별히 이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4년도 금강대학교 결산(안)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

전 위원 : 동의합니다.

서문성 의장 : 감사합니다. 그럼 201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<의장의 폐회 선언과 함께 회의를 마칩니다.>